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라

Suzanne B. Rice
번역 **김성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제가 한국에 와서 받은 가장 큰 선물 중의 하나는 한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노력들의 역사를 찾아내고 계승시키고자 애쓰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임직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알고 지냈던 해외민주인사 분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뵐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겐 또 하나의 큰 선물이었죠. 이번에 함께 하신 각각의 모든 분들은 지난 한국의 민주화 투쟁에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삼십여 년 전에 저희들이 혹독한 취조를 당했었던 옛 안기부터를 방문했을 때는 정말이지 묘한 느낌이 들더군요. 이렇게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던 몇몇 장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혁당 사건을 떠올린 서대문 형무소

우선 서대문 형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군요. 수많은 세월동안 죄 없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고통이 가해졌을 현장을 거닐면서, 정치범들에게 음식, 의복, 담요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모아서 될 수 있는 한 자주 그곳을 찾아 그들의 어머님들과 부인들을 도왔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우리들 중의 몇몇은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월요 기도회 Monday Night Group)을 만들게 되었죠. 시노트(Jim Sinnott) 신부님께서 이른바 '인혁당 사건'이라 불리는 정부조작사건의 연루자들이 교수형을 당한 건물 입구에서 영혼을 울리는 기도를 하실 때("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우리들은 서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겨야 했습니다. 특히나 그때 억울하게 사형 당한 사람들의 부인 두 분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에 그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혹독한 취조를 당했던 남산 옛 안기부 터

남산 옛 안기부 터를 방문할 때는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모진 취조를 가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심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지난 세월동안 겪었을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 답답해져 왔습니다. 깊고 어둑어둑한 텅 빈 지하실에 들어섰을 때, 우리들이 퍼뜨리는 작은 소리들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외쳤던 사람들의 존엄이 처참하게 짓밟혔던 당시의 비통한 통곡소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자식들을 잃은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속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바쁘고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들과의 대화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노 대통령에게 국제문제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정책과 행위가 매우 우려스럽다는 저의 입장과, 맞닥뜨린 위협적인 도전들과 관련하여 그를 지지한다고 말했

습니다.

도라산 역, 판문점, 그리고 DMZ 등은 남과 북의 섬뜩한 대립뿐만 아니라, 분단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십 년이 넘는 동안 가족들을 헤어져 있게 만든 경계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척 괴롭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에는 분명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느낄 수 있게도 하였습니다. 많은 종류의 야생 동식물 및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광활한 비무장지대를 바라보고 있자니, 훗날 언젠가 모든 적대적인 것들이 사라졌을 때, 이 지역이 야생동식물 보호지구로서 보존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과거의 기억을 품고 있는 현장들을 지켜나가야

1980년 5 · 18 민중항쟁의 진원지인 광주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일정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생활했던 동안(1966~1982년)에 나와 남편은 주로 서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에 자주 갈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982년 봄,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동안 광주 YMCA를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몇몇 YMCA의 지방 지부들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 YMCA의 설립자인 박에스더 여사와 동행했었습니다. 광주는 그 일정 중 마지막 방문지였죠. 그곳 YMCA의 건물에서 최초로 총이 발사되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우리 둘 모두 충격으로 놀랐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건물은 이미 헐리워졌고 다른 지역에 새 YMCA 건물이 지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웠습니다. 먼저 가신 희생자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기억들을 품고 있는 현장들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82년 광주를 방문했을 때, 나는 무차별적으로 대량학살 당했던 사람들의 묘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묘역이 그 자리에 아직도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들, 특히 신원 미상자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백양사를 잠깐 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남도여행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었던 한 젊은 승려는 그곳 주지스님께서 직접 그린 그림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평화로운 곳에서 보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저에게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의 의미에 대해 깊이 명상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한국에서 이렇게 잊을 수 없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사업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 민중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연대감은 더욱 새로워지고 강해졌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번 해외민주인사한마당을 통해 월요기도회(Monday Night Group)의 오랜 친구들 및 동지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진정한 민주주의, 인권, 정의를 이루기 위한 숱한 투쟁들 속에서 한국의 형제 · 자매님들과 함께 했던 많은 기억들을 다시 한 번 새록새록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참으로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회에 감사를 드립니다.